

행사결과보고

2019 삼 청 관 광 미 술 제

SAMCHEONG TOURISM FINE ART FESTIVAL 2019

주 최 삼 청 미 인

주 관 삼청관광미술제 운영위원회



삼 청 미 인

2019 삼청관광미술제 행사 결과 보고

SANCHEONG TOURISM FINE ART FESTIVAL

7 JUN ~ 16 NOV 2019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삼청관광미술제는 조선시대부터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 휴식과 예술적 교류의 공간인 역사성과, 역사적인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이 2019년 11월 12일 개관 6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써 미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을 한껏 띄우고 있다는데 더욱 뜻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삼청미술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온 삼청관광미술제는 그동안 꾸준히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한 삼청로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명운동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노력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에 도움이 되었고 이는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일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청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약 70곳의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이 자리하고 있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삼청로가 앞으로 문화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삼청로의 숨겨진 매력을 나누고자 삼청관광미술제는 골목과 이면도로 등의 산책을 위한 정보와 본 행사에 참여하는 24곳의 갤러리, 박물관에서 준비한 20여점의 조형 작품과 삼청로 만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음식점, 카페 등 43곳의 즐길거리가 한/영문으로 표기 된 지도를 제작하고 삼청로 곳곳에 배치, 배포하여 산책의 즐거움과 유익함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청미인 신동은 대표의 개회사로 개막식이 시작되어 내빈 축하와 이어지는 축하공연에는 원장현류의 대금산조명인 원장현 명인의 ‘소쇄원’ 등의 2곡의 대금연주와 금현국악원 조경주 원장의 ‘향발무’ 등의 전통무용이 펼쳐진 삼청동의 품격 있는 카페진선 앞 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카페진선 후보람 요리사가 준비한 개막식 파티에는 와인과 맥주 다과회가 개막식에 참석하신 내빈과 함께 도로변 파티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개막식 축하파티로 기억 될 것입니다.

또한 갤러리 외벽 또는 주변에 설치된 조형작품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와 스마트 폰으로 연신 찍는 모습은 삼청관광미술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일 것입니다.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19 삼청관광미술제

(SAMCHEONG TOURIM FINE ART FESTIVAL 2019)

■ 행사기간 : 2019.6.7(금) ~11.17(일)

■ 개막식 : 2019.6.7(금) 오후 5시

■ 주최 : 삼청미인

■ 주관 : 삼청관광미술제운영위원회

■ 후원 : 종로구, 종로구 문화관광 삼청협의회(JCTC)

■ 협찬 : 가현문화재단, 한미사진미술관

2. 개막식 : 2019.6.7(금) 오후 5시

카페진선 뜰에서 식전 행사로 표진호 트리오의 재즈공연으로 시작하여 신동은 삼청미인 대표의 개막 인사와 종로구 국회의원 정세균의원, 윤종복, 정재호, 노진경 구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축하공연은 원장현 대금산조 명인의 대금연주, 조경주 금현국악원 원장의 전통무용 공연이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삼청동의 조선시대에 펼쳐진 과거급제 등과 축하연에 쓰였던 어사화(능소화)를 꽃사지로 사용함으로 삼청동의 이미지 부각에 신선함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삼청미술제 : 2019.6.7.(금)~11.17(일)

삼청로 소재 70개 갤러리, 뮤즘, 전시공간에서 전시와 20개 화랑의 조형전이 화랑 벽이나 주변에 5개월간 전시되었다.

4. 삼청관광미술제 안내지도 제작 배포행사

삼청관광미술제 행사안내문 1,000부 제작배포, 실내포스터 200부 제작부착, 안내지도 10,000부 제작 배포(영문표기 병행)

5. 개막식 및 행사 중 주요인사 방문

종로구국회의원(정세균), 종로구구의원(윤종복, 정재호, 최경애, 노진경), 한국세무사회부회장(경교수), 삼청교회목사(문희수), 삼청교회장로(이신희), 인천예술의전당사장(최진용), 종로구관광협의회사무국장(박홍평), 종로구관광과장(이은삼), 쉼박물관관장(박기옥), TV조선부장(서일호), ES건축사(이상엽), 삼청문화진흥원장(하남운), 색상대표(금동원), 라희무용단대표(남명희), 동해종합기술공사전무(한기열), 천주교신부(홍창라), 서예작가(전정우), 진선출판회장(허창성), 고송화랑대표(이동호), 한국화랑협회부회장(윤용철), 서울디자인건축사대표(김우섭), 안평안경현창사업회장(김문식), 삼청동장(안영미), 북촌전통공방협의회이사(최정인), 서양화가(김혜순), 카페다운대표(전대근), 갤러리일호대표(기일호), 종로구청문화관광국장(남준현)

6. 행사화보 : 별첨

7. 재즈공연 : 별첨

8. 불박히기 행사 : 별첨

9. 삼청동상가공실률 줄이기 행사내용 : 별첨

10. 언론보도내용 : 별첨 1. 서울경제신문 4월 30일자 기사

별첨 6. 행사화보



▲삼청관광미술제 운영위원장 신동은 개회사모습



▲종로구국회의원 정세균의원 축하모습



▲어사화(능소화) 달기



▲식전행사 표진호 트리오 공연



▲대금산조류 원장현명인 연주



▲금현국악원 조경주원장 고전무용 공연

별첨 7. 재즈공연

표진호 트리오 재즈공연

- 일시 : 2019년 11월 9일(토) 오후 3시
- 장소 : 카페진선(서울시 종로구 삼청로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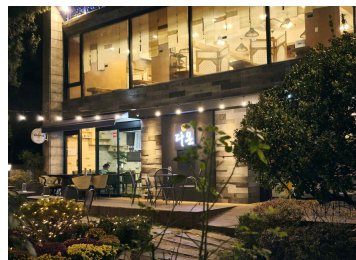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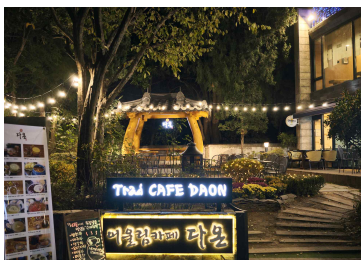


▲재즈공연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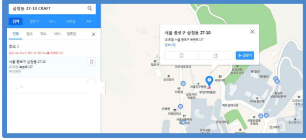
▲표진호 트리오 재즈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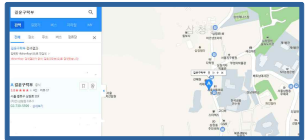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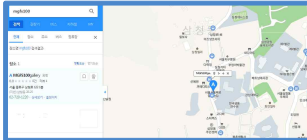
별첨 8. 불밝히기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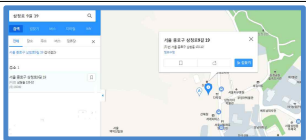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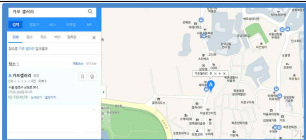


삼청로 가로변에서
2 ~ 3 년간 공실되었던 곳에
2019년에 입주한 업소 (12 업소)

1. 종로구 북촌로 5길 76 (소격동 86) 블루보틀코리아 삼청
2. 종로구 북촌로 135 (삼청동 27-4) 베트남 비자 사무실
3. 종로구 북촌로 137 (삼청동 27-10) LED Flower Cafe CRAFT
4. 종로구 삼청로 119 (삼청동 118-3) 길운구락부
5. 종로구 삼청로 122 (삼청동 28-25) MGFS100 갤러리
6. 종로구 삼청로 127-2 (삼청동 124-1) 일호 갤러리
7. 종로구 삼청로 9길 19 (삼청동 133-10) 아줄레주 갤러리
8. 종로구 삼청로 104 (삼청동 64) FRITZ HANSEN (덴마크 가구점)
9. 종로구 삼청로 96-1 (삼청동 62-26) 가모 갤러리
10. 종로구 북촌로 5가길 20 (화동 90-1) 스튜디오 POTA
11. 종로구 북촌로 5가길 35-4 (소격동 25-1) 떡 카페 다운
12. 종로구 삼청로 63 (팔판동 160) 유니콘 젤라또

상호명	블루보틀코리아삼청	베트남 비자 사무실	LED Flower Cafe CRAFT
위치	 종로구 북촌로 5길 76 (소격동 86)	 종로구 북촌로 135 (삼청동 27-4)	 종로구 북촌로 137 (삼청동 27-10)
현재			

상호명	길운구락부	MGFS100 갤러리	일호 갤러리
위치	 종로구 삼청로 119 (삼청동 118-3)	 종로구 삼청로 122 (삼청동 28-25)	 종로구 삼청로 127-2 (삼청동 124-1)
현재			

상호명	아줄레주 갤러리	FRITZ HANSEN	가모 갤러리
위치	 종로구 삼청로 9길 19 (삼청동 133-10)	 종로구 삼청로 104 (삼청동 64)	 종로구 삼청로 96-1 (삼청동 62-26)
현재			

상호명	스튜디오 POTA	카페 다운	유니콘 젤라또
위치	 종로구 북촌로 5가길 20 (화동 90-1)	 종로구 북촌로 5가길 35-4 (소격동 25-1)	 종로구 삼청로 63 (팔판동 160)
현재			



▲삼청동상가 공실업소에 부착되었던 포스터

[위기의 신흥상권]경리단길·삼청동길 쇠락에 안내지도 만들고 축제 여는 상인들

[상권살리기 민간힘]

지역 자영업자 자발적 모임 결성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모으기도

이주원 기자 2019-04-30 16:59:08 정책제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경리단길과 삼청동길에서는 요즘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민간힘을 쓰고 있다. 삼청동에서 갤러리 '마롱'을 운영하는 최현준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최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행위만으로는 상권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주목받았던 삼청동의 매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상권의 진정한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8월 삼청공원 인근에 터를 잡고 갤러리를 열었다. 삼청동의 쇠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다.

최대표처럼 삼청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갤러리 대표들이 무너진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삼청로문화축제'를 펼쳐온 신동은 갤러리 도올 대표를 중심으로 갤러리 진선, 갤러리 마롱 등과 함께 이 지역의 매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안내지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5월 인근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되는 이 지도는 세계적인 미술 거리로서 주목받고 있는 삼청동을 더욱 잘 알리는 데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삼청로문화축제도 4년 만에 오는 6월 개최된다.

경리단길에서는 방송인 홍석천씨의 주도로 자영업자가 모여 아이디어를 고안 중이다.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리단길 자영업자와의 첫 모임을 알렸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도 나타나고 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월 임대료 180만원을 최근 140만원으로 낮춰준 사례가 있다"면서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민·이주원기자 noenem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경제신문 4월 30일자 기사 스크랩

이주원, 「[위기의 신흥상권] 경리단길 삼청동길 쇠락에 안내지도 만들고 축제 여는 상인들」,
서울경제, 2019.04.30